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항상 힘이 들 때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영광스러운 날들을 상상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가 아들람 굴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단 한번도 평탄한 생애를 살아보지 못한 다윗이기에 그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가 써 놓은 시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의 생애를 사랑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사랑합니다.

아들의 배반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극히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충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죽는 날까지 그들의 충성심에 고마워하는 그의 겸손을 사랑합니다.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의 행동을 사랑합니다.

왕이지만 왕답지 않은 그의 처세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를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다윗을 통해 보는 고백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1) 양을 치는 소년 다윗(삼상 16:1-13)

이새가 자기의 일곱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는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앓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니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 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삼상 16:1-13)

부르심이 없이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 부르심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가로운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행 13:22)

하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을 찾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며,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대한 심한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이새의 가정을 찾은 사무엘

다윗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했던 것은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는 사물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고(삼상 13:8-10), 또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살쩐 짐승들을 살려둠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삼상 15:8-11,35).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찾아 이새의 집으로 가도록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그의 집에서 왕이 될 자를 찾아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는 [주]가 보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삼상 16:7)

우리가 왕을 세움에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모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외모가 용모나 키의 크기 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나 전쟁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몸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외모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진 재산의 정도나 집안 배경, 학력과 직업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몸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되는 조건으로 그러한 조건들을 전혀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무엘 앞에 다윗의 형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그들도 외적인 조건은 만족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경고합니다.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외모가 뛰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입을 자의 기준은 결코 그의 외모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양을 치는 소년 다윗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는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앓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니(삼상 16:11)

우리는 여기에서 형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사무엘이 그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집에 있습니다. 더욱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모두가 단장을 하고 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을 뒤로 하고 다윗을 불러오도록 함으로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은 결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수록 온전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꺾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충성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삼상 16:12)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 생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이목구비가 잘 생기고, 몸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매우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결코 외형적인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TV 를 통해 미인대회를 봅니다. 그곳에서 미인을 선발할 때 만일 외모만을 본다면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일 몸매가 아름답고 잘 생긴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인을 뽑기 위해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함으로서 지혜를 알아보고, 또한 장기를 드러내도록 함으로서 그의 재능도 심사를 합니다. 이 말은 미인이 결코 외형적인 몸만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에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언제나 경계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얼굴이 조금 못생겼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가 작거나, 몸이 비정상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외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는 매사에 단정하며, 품위가 있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옷을 걸치지 않아도,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아도 그의 몸의 움직임은 언제나 절제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4.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 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삼상 16:13)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선 이제부터 다윗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분의 영이 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때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그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성령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마귀의 존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의 존재를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주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 결론

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만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명이 스스로의 열심을 통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 즉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2) 위대한 음악가 다윗(사무엘상 16:23)

오늘날과 같이 난잡하리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음악들이 들려지고 있는 이 때에 바른 음악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규제하려 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CCM 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음악은 사탄적이다.”라고 주장한다거나 모든 악기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모든 악기와 음악은 모두 사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왜 정당화 될 수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찬양을 위한 글을 쓴 시편만 해도 약 80 편(1-41,51-65,68-70,86,101,103,108-110,122,124,131,138,145)에 이를 정도로 많이 썼으며 또한 성경 곳곳에서 직접 찬양을 하고 심지어 춤을 추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악과

관련하여 다윗의 삶을 추적하여 봄으로서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하프 연주자 다윗

다윗이 연주자로서 정식으로 연주를 시작한 것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미 기름부음을 받고 처음 왕궁에 출입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음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미 주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삼상 16:14)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신하들의 제안입니다. 그것은 그의 악한 영이 하프 연주를 통해서 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들은 하프를 연주하게 되면 왕이 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하프를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니(삼상 16:16)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정식으로 궁중 음악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롭게 하는 것은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로부터 악한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음악을 통해 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삼상 16:23)

이 사건은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음악을 통하여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장면을 성경 안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악하는 자를 내게로 불러오소서, 하니라. 음악하는 자가 연주를 할 때에 [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시니(왕하 3:15)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그들의 연주가 악기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기 자체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곡조만을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그 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곡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사된 내용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곡조는 그 자체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음악이 내용보다는 곡조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시도 훌륭한 곡조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내용이 부실하고, 단순해도 곡조가 훌륭하면 불려지게 되는 경우들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에 대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곡조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 곡을 작성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리듬을 사용했는가? 기본적인 곡조(장조,단조)는 무엇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다양한 조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곡조가 가져다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찬송사가 없어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연주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주는 양들을 인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음악은 온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음악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분명히 위대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소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사탄이 음악을 맡았던 천사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탄은 음악에 있어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사탄의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경계하고 주님을 위해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 다윗의 춤

몇 해 전에 매우 친분 있는 어떤 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단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춤을 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몇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여 친분 있는 교회의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춤을 춘 이유를 물으니 교회 안에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해서 찬송할 때에 함께 무용을 기획해서 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주변 교회의 마치 무당들이 춤을 추는 것 같으면서 교단에 고소를 해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몸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춤을 춥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모습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팀을 만들어서 배우기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춤이라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춤을 추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 그때에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삼하 6:14)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간단한 동작의 율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춤은 격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춤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출 때에 그 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삼하 6:20). 즉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자극을 바탕으로 한 춤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춤들은 격렬하고, 보기에 좋으며, 때로는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까닭에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중년에 이르기까지 춤을 배우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춤은 그들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추는 이유는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여 주 앞에서 뛰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삼상 6:21). 그것은 보기에 매우 천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매우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삼하 6:16)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대상 15:29)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도 매우 품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천박한 춤을 추는 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의 눈으로 볼 때에 그의 모습은 더욱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춤을 합당하게 여겼으며, 오히려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도록 하심으로 그를 매우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삼상 6:23). 다윗의 춤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춤을 추는 일이 발생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춤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또한 부르심에 감사해서 춤을 추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일은 삼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고전 14:40).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법을 정해 두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령의 법 아래서 운영이 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살핀다면 심지어 춤을 추는 일조차도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춤을

추는 일은 최소한 성경의 근거로 볼 때 결코 천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은 지혜롭고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3. 다윗의 악기

찬양을 함에 있어서 악기가 가지는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악기를 통한 찬양 단원의 숫자가 사천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대상 23:5). 그 가운데 주로 사용되어졌던 악기는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과 심벌즈였습니다(삼하 6:5, 대상 13:8, 15:16, 15:28, 25:1, 25:6, 대하 5:12, 20:28, 29:25). 그러나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기쁜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즈 등의 악기를 울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내게 하매(대상 15:16)

우리는 악기가 사람의 모든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찬양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기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행진곡처럼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러한 행진곡 풍의 노래가 찬송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진곡 풍에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정서를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곡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기쁜 소리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사실은 당시에 주로 찬양을 연주했던 자들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대상 15:16, 16:5, 대하 5:12, 7:6, 29:25). 물론 연주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레위인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선견자들도 찬양을 하였지만(대상 25:1-5), 대부분은 레위 사람들에 의해 연주가 되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 할 때에도 레위사람들을 찾아내어 연주를 하도록 한 것을 보면 찬양에 대한 그들의 비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벌즈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느 12:27)

그러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결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레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궁중 음악사로 초청을 받았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들을 나가게 만드는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 주된 연주자들은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다윗도 그들로 하여금 연주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경배 모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 중심의 경배 모임은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 찬양을 연주하는

자들이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고 그들의 역할이 매우 비중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경배 모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교회는 다양한 악기로 보다 아름답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집과 왕의 궁에 이르는 계단식 단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전에 유다 땅에서 보지 못한 것이더라(대하 9:11)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찬양은 다윗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찬양을 하기 위한 계단식 단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하프와 비파는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오늘날과 같이 악기와 사람들의 노래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대상 15:16). 현대인들은 대부분 악기와 노래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악기를 금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는 도고로 악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주께서도 이러한 찬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기를 통해 영광을 드리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4. 그리스도인의 찬양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이 경배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음악을 표방하는 CCM 과 같은 음악은 사탄음악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CM 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불순한 동기나 다양한 음악 장르, 그리고 치밀한 사탄의 계략 아래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탄 음악들의 침투 등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탄음악으로 치부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찬송들의 대부분이 대중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히 한 개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和答)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아름다운 가락을 만들어 노래하며(엡 5:19)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에게 화답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들과의 찬양을 통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찬양이 오직 경배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찬양이 없는 교제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골 3:16)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가 교제를 위해서만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일에도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 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듣고 있던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풀렸던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사람들의 결박을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또 지각으로도 노래하리라(고전 14:15)

우리가 찬양에 대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으로만 찬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말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각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영광을 드릴 수 없다면 그 찬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며, 그 찬양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늘에서 아름답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를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찬양으로 극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주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 그의 거처와 성막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 찬양을 하도록 만든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찬양에 대하여 고정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3) 다윗의 우정(사무엘상 18:1-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사무엘상 18:1-4)

우리는 성경 안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친구가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요나단이 왕의 아들, 즉 왕자로서 차기 후계자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서로 경쟁 상대가 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군대를 통솔했던 장관의 위치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본다면 둘의 사이는 가족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처남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친구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관계를 우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 장차 왕이 될 자이며, 결국 사울의 자리에 앉게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셨고, 다윗은 이 싸움을 훌륭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있은 후에 다윗은 사울의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이 이루어 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삼상 18: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 눈에 반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밀착되어 하나가 되어있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삼상 18:3)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같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더라(삼상 20:17)

처음에 이 우정이 요나단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나이가 다윗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또한 다시 맹세하게 함으로서 다윗에 대한 사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요나단의 목숨을 건 우정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우정이 주로 요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며, 그를 돕습니다. 그가 다윗을 돕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도 매우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었음에 분명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중심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정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이르되, 원하건대 왕께서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은 매우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전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눈앞에 있으니라(삼상 19:4-7)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오히려 친구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친구를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그는 아버지를 이해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정당한 것에 대하여 빠르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그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내가 내일 아무 때나 혹은 셋째 날에 내 아버지를 자세히 살필 때에, 보소서, 다윗을 위하여 선한 일이 있는데 내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는 것을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을 네게 알게 하고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리라. [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같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나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집에서 네 친절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이 언약을 요구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같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더라(삼상 20:11-17)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이에서 맹세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위로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오니라(삼상 20:42)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집니다. 그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영원히 그들과의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들 자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니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삼상 23:16-18)

이제 그들은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쌓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사울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아버지인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은 다윗의 다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고백했지만 사울은 인정할 수 없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바로 겸손해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이 진정한 우정은 없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다윗의 아래에서 복종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현재의 위치가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낮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데서 아름다움이 잇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고 그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슬퍼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삼하 1:26)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 심히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이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떠한 사랑도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짝사랑이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정은 나누는 것이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일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 있을 수는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우정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죽은 이후에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우정이 죽은 이후에나 결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다윗의 보상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쌓아가는 동안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고,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벅찬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요나단의 우정은 진정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죽었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고, 또한 그 사랑을 보답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더니 전에 예스르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에 그가 다섯 살이었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더니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더라(삼하 4:4)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쓸 수 없는 므비보셋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 안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의 손자였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를 찾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삼하 9:1)

이미 다윗은 사울의 집 안에 남아 있는 자를 찾습니다. 비록 다윗과는 원수와 같이 대적하며 살았던 사이였지만 요나단으로 인하여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음식이 있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 명이 있고 또 종 스무 명이 있더라(삼하 9:9-10)

다윗은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자신의 상에 앉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배려가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므비보셋을 자신의 아들과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두 발을 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거동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상에 같이 앉음으로 그의 두 다리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도록 그의 자리를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영적 불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주님의 자리에 앉히심으로 인하여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동안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삼하 9:13)

므비보셋은 계속해서 다윗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므비보셋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킬 것이며, 그 동안에 므비보셋은 다윗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바꾸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안전함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의 친구가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1:19, 눅 7:34).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 친히 친구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마 26:50, 눅 12:4). 죽은 나사로에게도 친구라고 고백하고 계시며(요 11:11),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요 15:15).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가 친구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누가 주님의 친구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요 15:13).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선을 행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보다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교재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더욱 아름다운 교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약 4:4)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 결론

요나단을 생각해서 비록 원수의 자손이었지만 므비보셋에게 선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그 사랑을 간직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힘겨운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혜로움과 인내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4) 다윗과 사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는 관점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대하여 단 한번도 원수와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하여 왕으로 세우기를 힘썼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마음으로부터 슬퍼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맺었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더불어 갈등하고 고민하며, 심지어 원수와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다윗을 통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 다윗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그 자체로부터 결코 평범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 만남은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궁중의 악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삼상 16:16). 이후로 다윗은 정식 군사는 아니었지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면서 사울이 통치했던 왕국을 건져내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삼상 17:41-49). 사울도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매 사울이 그로 하여금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삼상 18:5)

한 나라의 왕이 훌륭한 신하를 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같은 신하는 두게 됨으로써 그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충성하고자 했던 다윗의 자세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사울을 떠나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천인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며 그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삼상 18:12-14)

왕이 신하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통치를 안정되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사울 스스로 다윗을 견제함으로 인하여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수많은 갈등들을 낳게 되었고, 나중에는 원수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주께서 그로부터 떠났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머물러 계시기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음을 열어 사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했어도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결국 사울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더욱 필요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2. 다윗이 사울보다 백성에게 더욱 사랑을 받음

다윗은 분명히 사울보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것과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서 나아와 노래하며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삼상 18:6-7)

백성들의 다윗을 위한 춤과 노래는 사울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한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기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원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갔음이더라(삼상 18:16)

다윗은 당시에 왕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를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왕의 신분으로 있는 사울보다는 다윗의 몸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밀했고,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대중들과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의 사랑을 힘입어 왕이 되었지만 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 같은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궁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백성들과 더불어 보다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 정치와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잇는 것과 지도력은 다른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기 순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연예인(영화배우, 가수...)들 가운데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연예인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와 인기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유능한 부사역자(부목사, 전도사...)를 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매우 기뻐하는 목회자는 매우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를 견제하는 지도자는 오히려 그 지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실력 있는 부사역자는 가르치는 것도 잘 하겠지만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이며, 겸손한 성품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며, 또한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지도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와 지도력을 구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 다윗의 원수가 된 사울

결국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질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매우 사소한 것이었지만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은 단 한번도 사울에게 대하여 대항하거나 불순종하여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지만 사울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삼상 18:28-29)

성경은 사울이 다윗과 원수가 되는 동기가 두려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협박을 통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는 협박을 받아서 원수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행동만을 보고 스스로 원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견제하고 원수를 맺는 경우들을 목격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 원수와 같이 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도 성경대로 사는 자들이 많은 공격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근거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들은 결코 원수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벗어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원수들을 만들고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욱 많은 사악한 교리들을 가지고 더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권위로 삼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제 아무리 세력을 확장시켜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에 심판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심정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 원수 맺으려는 마음을 없애야만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어져 온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4. 끝까지 사울을 보호하는 다윗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죽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정당방위라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내밀어 내 주 곧 [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그가 [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삼상 24:6-8)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사울이 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원수 사랑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참는 것으로도 매우 훌륭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내는 원수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원수에 대하여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에게 대하여 인내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 날 네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크게 잘못하였도다, 하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창을 보소서.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을 오게 하여 가져가게 하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 주시기 원하오니 이는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되 내가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높이 든 것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높이 드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삼상 26:21-25)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윗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우시의 사랑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의 관계를 맺으며 강력한 힘을 가진 사울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랑을 무기로 싸우던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5.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사울이 죽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축제라도 해야 할 입장이지만 그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저녁때까지 애곡하여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삼하 1:11-12)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저녁때까지 애곡하며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그는 사울에 대하여 왕으로서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삼하 1:17)

다윗의 슬픔은 결코 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사울을 사랑했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겉치레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통하여 진실한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결론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가 없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5) 다윗의 여인 밋세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밋세바를 가장 먼저 언급하려는 이유는 그녀가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였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아내로서 대부분의 생애를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밋세바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여인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악으로 얻어진 여인을 가까이 두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밋세바는 그의 말년까지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 간음죄를 범하는 다윗

다윗은 한 여인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한가롭게 왕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윗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녀에 대한 호기심에 그녀에 대한 신상을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 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헛 족속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라(삼하 11:3)

결국 그의 호기심이 결국에는 그녀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침상으로 들임으로써 그는 결국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다윗의 정욕으로 인하여 이 짧은 순간의 범죄는 결국 더욱 큰 범죄를 낳게 되었고,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가 범죄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마귀의 활동이 믿는 자들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으며, 오히려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롭게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순간에 싸우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 그는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와의 싸움을 중단하고 쉬는 동안 그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싸움터에서 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안일하게 좀 더 쉬고, 좀 더 잠자려고 한다면 결국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밤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 어둠은 죄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곧 죄 가운데 다니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자리에 가거나 혹은 불의한 일에 가담하게 된다면 그는 역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건전하지 못한 자리에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자리에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뜻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시 1:1-2)

어둠의 시간, 어둠의 장소를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빛 되신 주님 안에, 즉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둠의 자리, 곧 세상에 마음을 두고 안주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2. 살인죄를 저지르는 다윗

죄는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욱 큰 범죄들을 꿈꾸고 결국에는 완전한 타락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강간으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전쟁터에 있는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불러옵니다(삼하 11:6). 그리고는 둘이 동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여 결국 그의 군사들과 더불어 지내고,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당혹스럽게 된 것은 물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음모는 자신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37 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삼하 23:39). 이 과정에서 요압이라는 자가 일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여부를 왕께 아뢰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다른 군사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 몰았던 것입니다(삼하 11:15).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 가운데 몇 명이 더 죽었다는 것입니다(삼하 11:17). 목표는 우리야 한 사람이었지만 더 많은 훌륭한 장수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다 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 결국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몰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체면, 혹은 자존심과 같은 것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범죄로 이끈 장본인이 우리야의 아내였던 밋세바였지만 성경의 어디에서도 그녀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상황이 밋세바에게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삼하 11:26).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남편 우리야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셨고, 결국 그의 아들을 다윗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사람들 안에 머물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안에서의 살인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웃에 대한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은 범사에 많은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누구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절하게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 안에 다가 온 죄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고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3. 밋세바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다윗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돌이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앞으로 당하게 될 징계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헛 족속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족속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삼하 12:9-10)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그의 집권 말기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살인을 하는 처절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생애를 마감하기 전까지 그의 집에는 평안할 날이 없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칼의 위험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돌이키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장차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불신자들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믿는 자들일 지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회계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삶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시매 아이가 심히 앓으니라...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삼하 12:15,18)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죄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이라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었고, 비록 아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금식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는 아이가 죽은 이후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삼하 12:20). 그는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밋세바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였지만 당연히 어머니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 한 아이를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다윗의 뒤로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삼하 12:24)

주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이러한 속성을 바로 이해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위로해 주시며, 또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 회개 하는 다윗

사람들은 다윗의 위대성을 그의 용기나 정의로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나단에 의해 지적되었을 때 그는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 편은 그가 얼마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 오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긍휼로 내 범죄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완전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시 51:1-2)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죄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의롭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눈 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4)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만일 죄 사함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주님으로부터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진 생애를 보내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의 위대함이 회개함을 통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5. 밧세바로 인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다윗

성경 안에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로서가 아닌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그녀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마 1:6)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신분이 왕비로서 결코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과거에 당한 수치를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모든 왕비보다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녀는 다른 왕비들과는 달리 왕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 사실을 근거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줄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구부려 왕에게 경의를 표하니 왕이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주 왕의 하나님을 두고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게 되고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거늘(왕상 1:16-17)

이 일 후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결국 밧세바는 모든 여인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왕의 어머니로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솔로몬도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녀를 앉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서 그녀를 영접하며 절한 뒤에 다시 왕좌에 앉고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니 그녀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더라(왕상 2:19)

밧세바가 이토록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받을 상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맞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또한 구하는 자들은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결론

밧세바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로 인한 우리야의 살인이 다윗의 정직함과 신실한 생애에 유일한 오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헛 족속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왕상 15:5)

그러나 밧세바는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비록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다우시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림으로써 그녀의 아들 솔로몬을 왕좌에 앉혔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 놓았습니다.

주님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의 생애를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원리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장차 큰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윗(6) 다윗과 그의 대언자 나단(사무엘하 7:4-11)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 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 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원수를 네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네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내게 그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하노라(사무엘하 7:4-11).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매우 존경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언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 때 보내진 대언자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양심" 혹은 "주는 자"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에 궁중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자입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대언자입니다.

1. 다윗의 성전건축 계획을 금지시킴(삼하 7:4-17)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나라가 안정되자 성전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삼하 7:2),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즉 천막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양심을 크게 상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언제나 피난처가 되셨던 그분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나단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도 역시 성전을 짓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삼하 7:3)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그 모든 계획들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는 또 다시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윗에게 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전건축보다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원하셨고, 성전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중단시키신 것입니다(대상 22:8). 대언자의 입장에서 왕의 뜻을 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고, 다윗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성전건축을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전하려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단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들을 전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의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우리야의 아내를 간통 하였을 때 다윗을 꾸짖었다(삼하 12:1-12).

다윗과 나단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돋보였던 장면은 역시 우리야의 아내였던 밋세바의 문제를 두고 벌여졌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매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밋세바를 강간했던 사건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밋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까지 계획적으로 죽이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던 자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죄책감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한 마을에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양 한 마리를 딸같이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비유를 들며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나단의 책망은 어찌 보면 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많은 대언자들이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였다가 죽은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의 행동은 너무도 모범적인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왕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를 회개시켰던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구해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일 후에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주목 받는 것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는 나단의 말을 들은 후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삼하 12:13)라고 고백합니다. 이후로 그는 침상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나 영광을 뒤로하고 오히려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다윗의 후계자를 세움(대상 22: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의 소생도 아니며, 위로는 형들이 있었고, 또한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자들이 아도니야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이 일을 알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본래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아도니야의 추종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윗을 일깨웠습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용사들이 호위하여 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1:38-39).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하도록 촉구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칫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언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번개되고 변질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힘썼던 나단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7)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사무엘하 14:25-26)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그가 머리털을 깎되 해마다 연말에 깎았더라.) 그가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 보니 왕의 무게로 이백 세겔이었더라(사무엘하 14:25-26)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까지 관심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오히려 장남이었던 암논과 이스라엘 중 가장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었던 압살롬이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었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은 가장 뛰어난 자였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로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삼하 3:3). 그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긴 자였습니다(삼하 14:25).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은 매우 아름다웠던 누이 다말을 만형이었던 암논이 강간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을 죽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그술 땅에 있는 외가에 가서 3 년간을 있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그는 2 년간을 아버지인 다윗을 대면하지 못합니다(삼하 13:37, 14:1-3, 21:28).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헤브론에서 아히도벨과 함께 이백 명의 군사와 12 지파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은밀히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 교활한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며 패륜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삼하 16:21-22). 그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따르던 후세의 계략과 요압으로 인하여 전세는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생명을 거두지 말 것에 대하여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당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삼하 18:5). 전쟁이 시작되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면서 압살롬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 도중에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요압은 너그러이 대하라는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삼하 18:6-15).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그의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삼하 18:33), 나중에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원수 같았던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의 후궁, 즉 그의 양어머니들을 겁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악한 패륜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자녀들에게 패륜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우리야의 아내였던 밋세바를 강간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8 명의 아내와 10 명이

넘는 첩을 거느리고 있었고(삼하 3:2-5), 그의 아들의 수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해도 17 명입니다. 그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결국 자녀들을 패륜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목격됩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에 한 남편만을 두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건강한 삶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지 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이 실수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의 후계자에 대하여 매우 우유부단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차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조차도 파당을 나누어 각각 다른 이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논은 장자였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많은 간신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누이 동생까지 강간하는 일들을 모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죽기 전까지는 가장 유력한 왕위 후보였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 인기를 힘입고 왕이 되고자 했고, 실제로 잠시 동안 왕 노릇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우유부단함을 통하여 가정은 엄청난 혼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매사에 분명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된다면 범사에 유혹이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매우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변질은 타협에 있습니다. 이 타협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에는 매우 평화로워 보이고 안전한 것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라면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분명한 자세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8)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왕상 2:28~34)

그때에 소문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그가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불들을 잡으니라. 어떤 이가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는데, 보소서, 그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하므로 이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덮치라, 하니라.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니 브나야가 왕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요압이 이같이 말하고 내게 이같이 대답하더이다,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묻을지니 이것은 네가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니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둘을 덮쳐서 그들 곧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느니라. 그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씨의 머리로 되돌아갈 터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왕좌에는 {주}로부터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니라.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던 자기 집에 묻히니라. (왕상 2:28~34)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요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비록 다윗의 인생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써 아비새와 아사헬의 형이기도 합니다(삼하 2:13). 그의 이름은 “주(여호와)는 아버지 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영토 확장을 위해 여부스족과의 싸움이 있게 되면서 “여부스 족속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는 다윗의 약속이 있는 후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 족을 침으로서 우두머리, 즉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대상 11:6).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많은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렸고, 다윗의 군대장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가 왕으로 재임해 있는 동안에는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더불어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행한 일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대적했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와 충성을 다짐했을 때, 요압은 그를 조용히 불러 성문 곁으로 데려가서 죽입니다(삼하 3:27). 그 이유는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요압은 그를 원수로 생각하여 왕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용히 죽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행세를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마음을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많은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행동합니다. 요압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 왕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줄도 알았으며, 그의 몸은 경건한 삶이 체질화 되었을 정도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외식하는 자, 혹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장례를 치룹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삼하 3:31). 백성들은 처음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장례를 통하여 자신이 결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요압에 대하여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게 너무 강하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삼하 3:39)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요압은 그 세력이 너무 커져서 다윗조차도 그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큰 존재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언제나 다윗의 편에 있으면서 다윗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우려 합니다. 요압이 비록 반역을 행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엄청난 권력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에서 그는 또 한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해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삼하 14:1~3). 이 일은 요압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궁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압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데려 온 장본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권을 잡게 되면 그 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권세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다윗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의 군대와 대적하게 됩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요압은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요압의 자세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였고, 그가 죽지 않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윗의 군사들에게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지만 요압은 친히 달려가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는 압살롬이 다윗과 백성들 앞에서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압은 자신의 신의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감정으로 죽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 후에 다윗은 잠시 동안이지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치기 위하여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요압의 권세를 향한 욕망이 좌절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요압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사실을 매우 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바를 치는 일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새와 함께 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삼하 20:9~11). 이 일후에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삼하 20:23). 그는 평생을 살면서 권세의 끈을 놓지 않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욕망은 다윗의 시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를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고 결국 그와 더불어 반역하게 되면서 솔로몬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죽을 명분을 찾던 중 마침 반역이 있게되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요압을 죽였습니다(왕상 2:28~34). 그의 인생은 이처럼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세상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때로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지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인생을 설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9)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삼하 9:9-13)

그때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음식이 있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 명이 있었고 또 종 스무 명이 있었더라. 그때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던 모든 자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처럼 므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사무엘하 9:9-13).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성경의 인물을 대표할 만한 우정을 보였던 관계였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과는 결코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지만 언제나 동등한 입장에서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비록 그 우정의 관계가 결코 길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통하여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 그 우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므비보셋의 이름은 “바알의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진 므립바알이었습니다(대상 8:34). 그러나 후에 다시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므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알 신에 대한 반감이 이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비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족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였던 사울을 비롯하여 아버지 요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졸지에 고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불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섯 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형제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유모가 므비보셋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그의 두 발을 다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였던 사울과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같이 전쟁에 나설 수도 없는 존재였으며,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왕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누군가의 보복을 피해 요르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진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눈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옛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찾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해치려는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그 혈통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므비보셋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므비보셋을 위해 과거 그의 집안의 시종으로 있었던 시바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의 선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식탁에 므비보셋을 앉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삼하 9:1-13). 그것은 곧 므비보셋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왕족으로서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 다닐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왕의 후손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희망 없는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사건이 므비보셋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삼하 19:26). 이 때 시바는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를 모함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집이 오늘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리라”(삼하 16:3)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믿고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건네줍니다.

후에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므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고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 므비보셋에게 자신과 같이 가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그는 다리를 절어 종의 도움을 얻어 나귀를 타고 왕에게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종이었던 시바는 자신을 속이고 왕에게 자신을 모함했노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후에 왕은 종인 시바의 재산을 다시 므비보셋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므비보셋은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도록 말합니다(삼하 19:1-30). 이것은 성경에게 므비보셋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때는 므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매우 억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 되는 것은 진실함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의 약속과 공로로 인하여 은혜를 입게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자리에서 함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므비보셋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오직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된 사실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다윗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으며,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다윗으로부터의 자신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려면 그의 눈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재물과 명예, 권세와 같은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늘을 소망 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삼하 2:8~11)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에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였으며 이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의 집을 다스린 기간은 칠 년 육 개월이더라. (삼하 2:8~11)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었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40 년 동안 통치해 온 사울은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오는 것을 반가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사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지만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를 사울을 추종하던 자들은 다윗을 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면서 약 5 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에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사십 세였습니다. 유다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들을 **이스보셋을 다랐던 그의** 왕권은 곧 회복되어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 사울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쫓겨서 결국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을 도성으로 하여 2년간 통치하는 것으로 그의 왕권을 향한 도전은 끝이 납니다.

그는 본래 에스바알, 즉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지만 후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보셋으로 고쳤습니다(삼하 2:2 8, 대상 8:33, 9:39). 그가 이름을 바꾼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절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에스바알 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그의 주변이 그리 신앙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믿음의 사람 이면에는 부모를 포함한 믿음의 선조들이나 스승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도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나 스승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왕권을 둔 다윗과의 경쟁에서 결코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세력은 점차 약해졌고, 다윗은 강해졌습니다(삼하 3:1). 어찌 보면 이스보셋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었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모세가 이끄는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출 17:8-16). 이 전쟁에서 싸움에 경험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두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것이고,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에 의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려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간단한 원리들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넬이라는 유능한 장군을 등에 업고 다윗을 이기려 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군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떠돌아 다닐 때에 얻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략이나, 전술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다윗에 대한 충성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유능한 자들을 그의 곁에 두고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붕괴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였을까요?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점차 권세를 잡아갑니다. 마침내 그는 사울의 첩이었던 이스바라는 여인을 간통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스보셋은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삼하 3:6-7). 결국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보셋과 대적하게 되면서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지금까지 대적하며 싸웠던 다윗에게 돌아 갈 뜻을 전하게 됩니다(삼하 2:12). 다윗은 사울을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삼하 3:13)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일 후에 이스보셋은 힘을 잃게 되었고, 그도 낮잠을 자던 중 레갑과 바아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대적했던 이스보셋의 모든 세력들은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아나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레갑과 바아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왕을 죽인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보셋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그가 사울의 아들이자 요나단의 형제로서 그의 편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 통합됩니다.

이스보셋은 왕권을 꿈꿨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적했고, 결국에는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이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총과 칼과 같은 무기로 전쟁을 해서 망하는 국가보다는 스스로 부패해서 망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전쟁의 승패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간에 충분한 교제가 없고,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승리하는 생애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11) 다윗의 신하 시므이(삼하 16:5~8)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에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삼하 16:5~8)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훌륭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생애에 오히려 큰 아픔을 주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생애에 큰 도움을 주었던 자는 아니었지만 다윗은 통치하는 동안 오히려 그를 보호하였고,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본래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다윗을 반역자로 간주하였고, 압살롬의 난 때에는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는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저주하며 말하기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저한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자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시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 두라”고 말합니다(삼하 16:9-11). 이것은 다윗이 그의 생전에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해서도 비록 반역을 일으켰던 자였지만 그를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가 비록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냐민의 사람이며, 그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냥 놔둘 것을 말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범법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가 하루에 일곱 번씩 범법하고 돌아와 회개할지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17:3-4). 다시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용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시므이는 압살롬이 패하자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이후에 자신의 신하로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군의 신하를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대적의 관계에 있었던 시므이를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입니다.

사울의 신하이자, 압살롬의 추종자였던 시므이가 다윗의 신하로 살면서 그는 다윗의 생애 동안 그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최소한 다윗의 생애 동안은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오히려 다우시는 매우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시므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는 힘을 잃은 다윗을 대적하여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반란에 개입하지 않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대언자 나단과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끝까지 섬겼습니다(왕상 1:8). 그는 다윗의 통치 후대에 대표할만한 신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과거의 행적을 두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 아래 놓여 있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가 실패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행적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편견도 버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많은 실수들은 사람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수나 실패들은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면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토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시므이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생애 동안 시므이를 그의 신하로 삼았지만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저주했던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칼로 그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를 살려 두었지만 결국 솔로몬에게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왕상 2:8-9). 이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였지만 솔로몬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죽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다라 3 년 동안 잘 견뎌오다가 결국 시므이의 종이 도망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브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왕상 2:36-46). 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신실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다윗(12) 모사꾼 아히도벨(삼하 16:20~23)

이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계락을 내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 둔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계락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계락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삼하 16:20~23)

다윗에게 있어서 모사와 지략이 뛰어났던 신하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히도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기로만 말한다면 다윗의 신하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결국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밋세바의 조부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삼하 11:3, 23:34). 물론 그가 매우 탁월하여 스스로 다윗의 측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윗의 인맥 속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가 되어 정치적인 자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자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무지함)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이 설명하듯이 그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한 후 아히도벨을 그의 고문으로 청빙합니다(삼하 15:12). 그는 권유를 받아들여 결국 그 동안 섬겨왔던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동안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의 결심은 헛된 야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압살롬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사와 지략들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베푼 계략은 압살롬에게 부왕이었던 다윗의 후궁들을 간통하는 일이었습니다(삼하 16:20-23). 비록 그 계략은 매우 악한 것이었지만 압살롬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잊은듯합니다. 그는 오직 압살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을 대적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 다윗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녀였던 밋세바는 다윗에게 강간을 당해 아내가 되었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는 다윗의 계략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분한 신뢰를 보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견제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큰 대적, 혹은 원수가 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수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다윗과 아히도벨은 왕과 신하로서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배신 이후로 그들은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자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지략가로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친히 만 이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기를 결심합니다(삼하 17:1-3). 그의 지략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공격 목표는 오직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다윗만 죽게 된다면 압살롬의 왕권은 확고해질 것이고, 다윗의 군사들도 자연히 항복하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략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이 계략이 매우 탁월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삼하 17:4).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였지만 압살롬의 아래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충성했던 아렉사람 후세의 지략이 더욱 훌륭하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수많은 군사를 모아 다윗의 군대와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전술은 거부되었고, 이 일 후에 압살롬의 군대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의 진행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삼하 17:14).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삼하 17:23). 그의 인생은 이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 지혜롭고 권위 있는 모사로 존경을 받았지만 악인의 편에 설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 충성을 다했고, 그들은 더욱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아히도벨은 단 한 번의 배반으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타협을 요구 받습니다. 때로는 그 타협으로 인하여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리를 버리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혹들은 마귀들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습은 결코 다윗의 시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권세들과 타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버리듯 세상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 끝까지 건디는 자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13) 블레셋 사람 잇대(삼하 15:19~23)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타국인이요, 추방당한 자니 네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어찌 내가 이 날 너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리요? 내가 정치 없이 가나니 그러므로 돌아가고 또 네 형제들도 데려가라. 공홀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잇대가 왕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또 내 주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매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어린것들이 다 건너가니라.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온 백성이 건너서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삼하 15:19~23)

성경에서 잇대라는 인물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으로 다윗의 포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방인이요, 본국으로부터는 추방을 당한 자로서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그는 즉시 다윗에게로 갔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군사로서 평생을 충성하게 됩니다. 그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훌륭한 군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훌륭한 군사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잇대 역시 압살롬의 눈을 피해 도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얻게 된 군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환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비들을 한두 번쯤을 겪게 됩니다. 그 때마다 그들은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기간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들도 목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 사건을 통해 보듯이 그것은 분명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훌륭한 군사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잇대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군사로서 평생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차에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환난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엡 3:13).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될지라도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 것이 확실합니다(벧전 4:13).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잇대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선택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잇대는 다윗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는 “[주]께서 살아 계심과 또 내 주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실제로 다윗에게 마음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이 싸움의 끝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잇대가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더욱 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잇대는 이미 그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반면에 옳은 선택은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잘 못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규정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잇대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편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설득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흐름을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하고 있는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망설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매우 불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정을 결코 후회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때는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로마의 카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멈추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리 반가운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태도를 볼 때 이미 원수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법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곳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더욱 큰 선물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고비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서 일하고 계신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일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다윗과 잇대의 모습을 통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14) 제사장 아히멜렉(삼상 21:1~9)

그때에 다윗이 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다섯 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난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 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 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더운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라. 이제 그 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엑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서 으뜸가는 자였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라. 그것이 여기에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싸여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삼상 21:1~9)

아히멜렉이라는 인물은 성경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인물입니다. 그가 논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과연 제사장으로서 굶주린 다윗에게 성전 안의 거룩히 구별된 빵을 주어야만 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는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을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과 무기가 없다고 했던 다윗에게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싸여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임의로 결정하여 다윗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결국 그는 도엑이라는 자의 밀고로 자신을 포함한 85 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제사장들의 도시였던 놉 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삼상 22:18-19).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린 한 번의 판단이 한 마을을 참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히멜렉은 경솔해 보입니다. 그는 비록 다윗이 배가 고파 있었다고는 하지만 누구와도 상의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는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성전 안에 있는 빵을 먹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빵은 더운 빵을 올려 놓은 날에 치워 놓은 것으로 어차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에돔 족속 도엑에게 목격되었고,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것을 다루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고발한 도엑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시 52:1)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도엑이 아히멜렉을 고발한 사건은 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엑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놉 땅에 거하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아히멜렉은 오히려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냐?고 오히려 변호하려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노하게 되고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에돔 사람 도엑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했고, 결국에는 도엑에 의하여 참변은 끝이 납니다(삼상 22:11-19). 사울이 다윗을

죽었던 이유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대적이었던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던 사실에 대하여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사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할 때 대답하실 때,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예를 들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죄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마 12:1-8).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비록 율법에 어긋나게 빵을 먹도록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 “내가 공흠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 안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는 공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은 율법 아래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공흠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히멜렉의 선택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물론 다윗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지만 굶주린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다윗이 비록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믿고 원하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율법을 수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대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모든 것이었지만 이 모든 규례에 앞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막 12:30,31). 이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보수나 근본을 앞세워 스스로 규례를 정해놓고 그곳을 벗어나면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랑과 공흠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히멜렉이 비록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재앙에 가까운 참변을 당했다 할지라도 신약성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사건을 두고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막 2:25~28)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놉 지방에 거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히멜렉이 놉 지방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의 오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점일획도 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마 5:18).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15) 나발과 아비가일(삼상 25:1~13)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삼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하는 일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것을 들으니라. 다윗이 청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네게 평강이 있으라. 네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네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알려 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느니라. 그런즉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그 모든 말대로 말하고 멈추니라.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에 다윗의 청년들이 자기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가서 돌아와 그 모든 말들을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사백 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이백 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 (삼상 25:1~13)

다윗의 시대에 나발이라는 인물은 야비하고 악한 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에 반하여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들여다보고, 또한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야비하고 악한 자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이 결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야 다윗을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울을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은 다윗의 역울함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사울의 사위이지만 대적을 하는 자로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말에서 그 당시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심부름으로 온 청년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발이 다윗을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나발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한, 즉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사울보다는 다윗과 더욱 가까운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이처럼 다윗을 무시한 것은 지역적인 특징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은 원래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지역으로 사울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비록 다윗에 대하여 잘 알고는 있었지만 나발은 사울의 편에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사울과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본래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잔치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청년들을 보냈던 것인데, 나발은 거절했고, 다윗은 당장이라고 나발을 죽이려 합니다. 나발의 단순한 판단에 다윗은 분노하였고, 나발은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나발의 어리석음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분노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참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방이라도 나발을 죽일 태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발의 무례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나발이 결코 자신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인기가 있었던 자신이 지금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발의 모습만을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노로 가득한 다윗의 감정도 결코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지쳐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발의 태도는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그로서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거나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따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분별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 위기의 순간을 맞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하나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의 제안을 거절한 나발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이 전쟁에서 얼마나 공을 세웠으며, 심지어 갈렙의 집에 속한 유다지파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나발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더욱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일 다윗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역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을 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육신적으로는 탁월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서 일하시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다윗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결단해야 할 때 대부분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일 것이라는 무지함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경솔한 판단을 막으십니다. 그녀는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고는 자신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녀를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도 있으며, 또한 현명한 여인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화평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나발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거두고, 나발은 사건의 전말을 듣고 열흘 후에 죽게 되고(삼상 25:37-38),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삼상 25:42).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편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이 언제나 의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행동을 막으시기도 하였고, 범죄 한 이 후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16) 골리앗(삼상 17:4-11)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육 큐빗 한 뼘이더라.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고 그의 창 축의 무게는 쇠 육백 세겔이더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 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삼상 17:4~11)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갔고,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통치력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곧 주변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을 골리앗을 내세워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으로 그 지역은 거인 족인 아낙 자손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수 11:22). 골리앗은 거인족의 후손으로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블레셋의 대표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하는 자와 결투를 하겠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결투를 하려고 했던 이유로는 아마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봉장으로 나선 자신이 이기면 패배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모든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7:8). 그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형태는 고대 이방의 전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군대, 그 중에서도 골리앗의 모습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십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상대할 군사를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골리앗은 분명히 매우 뛰어난 장수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거인으로 큰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이끄는 지도력과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장수로 인정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의 명성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윗만이 그를 대적하려고 할 뿐입니다.

당시 다윗에 대하여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전쟁터 있지 않았으며, 아버지를 도와 양을 쳤던 것으로 보아 나이가 20 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설 만큼 성숙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다윗의 귀에 들리는 골리앗의 목소리는 그를 자극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미 사울은 이 전쟁에 나서 골리앗을 눕히는 자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시킬 것이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17:25). 그러나 정작 다윗은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결투를 결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자신의 양떼를 해치려고 했던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비단 자신이 싸워 이기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손에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짐 보파리에 그것을 넣고 손에 자기의 돌팔매 기구를 가지고 갑니다. 사실 돌팔매 기구는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베냐민 사람들은 돌팔매 사용의 명수들로 언급되기도 합니다(25:29; 삿 20:16; 대상 12:2; 대하 26:4). 다만 다윗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결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17:47)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며, 그 전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이든, 아니면 육신적이든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그 싸움의 결과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팔매 기구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 죽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세게 던진다 할지라도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둘러싼 상태에서 오직 유일한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를 향해 던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소년 다윗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이마에 박힐 정도로 강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만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려진 결론은 자신의 칼과 창만을 믿고 큰소리쳤던(17:43,44) 골리앗이, 결국 자신의 그 칼로 자신의 목을 베임 당한 이 사실을 통하여 악인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구렁이에 그 자신이 빠지고 만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시 7:15;9:15).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세와 지식 같은 것들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대적할만한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듯이 모든 싸움의 성패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